

##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

###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Constraint,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articipation for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김종호\*, 조옥연\*, 조 성\*, 황선환\*\*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Jong-Ho Kim(ssere1@snu.ac.kr)\*, Woog-Yeon Jo(woogijo@snu.ac.kr)\*,  
Cao Xing(caoxing@snu.ac.kr)\*, Sun-Hwan Hwang(shhwang@uos.ac.kr)\*\*

#### 요약

이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0년 10월 2일대전에서 개최된 한국 중국인 유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총 210명의 연구대상을 표집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총 1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문항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과제 분석을 위해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 전략 중에서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과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여가 제약은 여가 참가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 참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중심어 : | 여가 제약 | 여가 제약 협상 | 여가참가 | 중국인 유학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constraint,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nd leisure participa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 total of 210 respondents, participating in the athletic competition for Chinese students, were selected to conduct this study,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Finally, 194 surveys except 17 respondent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using Cronbach's  $\alpha$  with SPSS 18.0 and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leisure constrain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Specifically, leisure constraint had an influence on 'leisure activity partner search' and 'leisure activity intensity control effort' out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strategies. Second, leisure constraint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leisure participation. Third,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leisure participation.

■ keyword : | Leisure Constraint |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 Leisure Participation | Chinese Students |

## I. 서론

최근 들어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경제적 교류 증대와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인해 중국 유학생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노력에 국내 대학들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7]. 법무부[6]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유학생은 72,420명으로 이중 중국유학생은 54,757명으로 전체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21,625명에서 2010년 54,75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향후 중국 유학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국유학생의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 유학생들은 이질적인 환경 및 문화로 인해 여가 활동 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어려움이 여가제약이다.

여가제약은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방해나 제약이 되는 요인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16], 여가 제약에 대한 연구는 북미권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여가제약에 적용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17]. 이에 따라 Crawford & Godbey[14]는 여가제약의 유형을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여가 제약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개인적 여가 제약은 여가의 선호와 방해에 관련된 개인의 심리조건을 의미하며, 대인적 여가 제약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 구조적 여가 제약은 여가참여에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제약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구조적 여가 제약은 대인적 여가 제약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제약은 여가에 대한 개인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1].

그러나 최근 여가 제약이론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가제약이 반드시 비참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전략을 통하여 제한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참가를 촉진한다는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15][22]. Mannell & Kleiber[21]

에 의하면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이 되는 요인을 근절하거나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여가 제약을 경험할 경우, 해당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자신의 여건을 조정함으로써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1]. 이러한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 제약이 필연적으로 여가 활동에 대한 불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18].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가제약과 참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협상 전략을 통하여 여가 제약을 극복하고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10].

이렇게 여가제약이 협상 가능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해외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19][22]. 예를 들어, Kay와 Jackson[18]은 여가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제약 협상 활용정도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내 실정을 고려한 여가제약 협상에 관한 적도가 개발되었으며[3], 이를 바탕으로 최근 여가제약 협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황선환, 최홍석, 한승진[12]은 스키어들의 여가제약 극복과정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로 발전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여가제약, 협상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최성훈[8]은 울산 지역 남성 직장인들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분석하였으며, 김지영과 이철원[4]은 기혼 여성근로자의 여가제약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렇듯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외국유학생들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한국생활 적응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에 따라 외국유학생, 특히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동석[5]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하정희[9]가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한국사회 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유학생에 대한 여가계약 및 여가계약 협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유학생들의 여가계약, 여가계약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 거주 유학생들의 여가계약 발생 및 여가 계약 극복에 대한 상호관계를 심도 있게 규명함으로써 그들의 여가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유학생들의 여가계약 및 여가계약 협상, 그리고 참가의 관계를 규명하고,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유학생의 여가계약은 여가계약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국유학생의 여가계약은 여가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국유학생의 여가계약 협상은 여가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0년 10월 2일 대전에서 개최된 한국 중국인 유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한 중국인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유의표집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특징을 잘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다[2]. 본 연구에서 유의표집법을 사용한 이유는 중국인 유학생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설문조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 체육대회에는 전국의 중국인 유학생이 모이는 자리로써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총 21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집된 210명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194부였다. 한국 중국인 유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한 중국인은 전국에서 모인 모집단이기 때문에 이들

은 한국 전체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연령	10대	7	3.1
	20대	170	87.9
	30대	15	8.0
	40대 이상	2	1.0
성별	남	112	57.7
	여	82	42.3
유학기간	1년 이하	60	30.8
	1년-2년	51	26.3
	2년-3년	37	19.1
	3년-4년	23	11.9
	4년 이상	23	11.9
한국어 능력	매우잘함	15	7.7
	잘함	35	18.0
	보통	97	50.0
	못함	35	18.0
	매우못함	12	6.2

## 2. 조사 도구

### 2.1 여가계약

여가계약은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계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2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Likert-type 방식을 이용하여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동의함)까지 측정하였다. 여가 계약에 관한 문항은 Raymore, Godbey, Crawford, Von Eye[24]가 개발한 문항을 바탕으로 Hubbard & Mannell[15]이 발전시킨 문항을 황선환[10]이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여가 활동을 하기에 너무 수줍음이 많다.”(개인적 제약), “나는 여가 활동에 함께 참가할 친구나 파트너가 없다.”(대인적 제약), “나는 사람들이 봄비는 여가 활동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구조적 제약) 등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한국어 수준차를 고려해 설문지는 중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 문항들은 한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유학생이 중국어로 번안하였고, 다시 박사 과정의 다른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번안하는 번안/역번안의 과정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 2.2 여가제약 협상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 제약을 극복하는지를 나타내는 2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여가제약 협상 문항은 Jackson & Rucks[16]가 최초 개발하고 Loucks-Atkinson & Mannell[20]의 연구에서 재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김경식 등[3]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6문항), 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7문항),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3문항),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3문항),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2문항),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가제약 협상 문항의 예로는 “나는 여가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여가 활동의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스스로 여가 활동의 강도를 조절한다.” 등이 있다.

여가제약 협상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 ‘매우 동의함’(5점)까지 5점 Likert-type 방식을 이용하였다. 또한 여가제약 설문과 동일하게 박사과정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어로 번안/역번안의 과정을 통하여 중국인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였다.

### 2.3 참가 정도

여가 활동 참가 정도는 참가 종목, 참가 빈도(횟수/주), 참가 강도(시간), 참가 기간(년)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이 네 문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 되었다.

### 3. 자료처리

본 연구에는 총 19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을 활용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통해 검증하였다. 유의수준( $p$ )은 .05로 설정하였으며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참가

정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단순회귀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신뢰도 검증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계수(Cronbach's  $\alpha$ )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크롬바 알파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추정 방법이다. 아래의 [표 2]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내적 일관성 신뢰도

영역	Cronbach's $\alpha$
내재적 제약	.743
대인적 제약	.782
구조적 제약	.731
여가제약 전체	.879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763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관리 노력	.710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631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716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549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	.603
여가제약 협상 전체	.895

[표 2]에 의하면 여가제약의 하위개념인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은 신뢰도 계수가  $\alpha=.731 \sim .782$  사이에 분포되었고 여가제약 전체는 .879로 나타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여가제약 협상 전략의 하위개념인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관리 노력,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은 신뢰도 계수가  $\alpha=.549 \sim .763$  사이에 분포되었고 여가제약 협상 전략 전체는 .895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III. 결과

1.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제약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여가 참가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여가제약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3][표 4]와 같다.

표 3.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제약(기술통계)

여가 제약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재	194	1.27	3.64	2.3983	.52267
대인	193	1.14	4.00	2.4937	.64219
구조	194	1.20	4.00	2.7088	.55456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 유학생은 여가제약의 요인 중 구조적 제약(M=2.7088)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대인적 제약(M=2.4937), 개인적 제약(M=2.3983)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여가제약

성	M	SD	Levene의 등분산 검정		t	df	p
			F	p			
남	2.45	.50591	1.977	.161	-2.909	191	.004
여	2.65	.42497					

[표 4]는 성별에 따른 여가제약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t=-2.909, p=.004) 남성과 여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중국인 유학생은 여가제약의 요인 중 구조적 제약(M=2.5982)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대인적 제약(M=2.4466), 개인적 제약(M=2.3052)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남자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제약(M=2.8598)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어서 대인적 제약(M=2.5575), 개인적 제약(M=2.5255)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유학생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에서 구조적 제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로 구조적 제약(M=2.8598)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어서 대인적 제약(M=2.5575), 개인적 제약(M=2.5255)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유학생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에서 구조적 제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가참가와 여가제약 및 여가제약협상 요인의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참가빈도(1)	-											
참가강도(2)	.048	-										
참가기간(3)	-.009	.252**	-									
내재적 제약(4)	.057	-.149**	-.158*	-								
대인적 제약(5)	.129	-.141	-.036	.653**	-							
구조적 제약(6)	.055	-.212**	-.076	.612*	.579**	-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7)	.066	.099	.084	.090	.192**	.325**	-					
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8)	.158*	.053	.059	.000	.108	.173*	.578**	-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9)	.061	-.007	.093	.045	.139	.302**	.525**	.550**	-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10)	.009	-.004	-.002	-.053	.051	.079	.456**	.501**	.373**	-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11)	.052	-.007	.085	.025	.005	.163*	.382**	.561**	.454**	.471**	-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12)	.116	.042	.024	-.086	.000	.142*	.561**	.574**	.354**	.425**	.317**	-

\*p<.05, \*\*p<.01

2. 상관관계 분석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가 빈도는 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 $r=.158$ )과 상관이 있으며, 참가 강도는 내재적 제약( $r=-.149$ ) 및 구조적 제약( $r=-.212$ )과, 그리고 참가기간은 내재적 제약( $r=-.158$ )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적 제약은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r=.192$ )과 상관이 있으며, 특히 구조적 제약은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을 제외한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r=.325$ ), 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 $r=.173$ ),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r=.302$ ),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r=.163$ ), 여가활동 열망 변화노력( $r=.142$ )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의 관계

여가 제약의 세 영역인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의 평균을 구한 후 이를 3으로 나누어 복합지수를 산출하고, 여가제약 협상의 여섯 영역 전체 문항에 대한 복합지수를 산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 제약과 여가제약 협상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가제약은 독립변인으로, 여가제약 협상은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여가 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여섯 번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요인별 회귀분석

관 계	b	$\beta$	t	p
제약전체→협상전체	.169	.155	2.170	.031
제약→협상 1(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312	.233	3.315	.001
제약→협상 2(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	-	.104	1.451	n.s
제약→협상 3(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272	.184	2.593	.010
제약→협상 4(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	.027	.368	n.s
제약→협상 5(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	.077	1.076	n.s
제약→협상 6(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	-	.020	.274	n.s

$R^2$ : 1=.054, 2=.011, 3=.034, 4=.001, 5=.006, 6=.001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제약 전체는 여가 제약 협상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70, p<.05, \beta=.155$ ).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 변량의 2.4%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의 여섯 요인들 중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t=3.315, p<.01, \beta=.233$ )과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t=2.593, p<.01, \beta=.184$ )의 두 가지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 중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변량은 5.4%,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은 3.4%를 설명하고 있다.

여가제약의 각 요인이 여가제약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여가제약 요인과 여가제약 협상의 회귀분석

관 계	b	$\beta$	t	p
내재적 제약	-.272	-.265	-2.727	.007
대인적 제약	-	.076	.793	n.s
구조적 제약	.389	.400	4.431	.000

종속변인: 여가제약 협상,  $F=1.498, R^2=.054$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분석결과와 위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내재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여가제약 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인적 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 전체 변량의 5.4%를 설명하고 있다.

4. 여가제약과 참가의 관계

여가제약과 여가참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 번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제약은 독립변인으로 여가참가 중 빈도, 강도, 기간은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여가제약은 여가활동 참가의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 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 $t= -2.807, p<.01, \beta= -.199$ ), 빈도와 기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은 여가 참가 강도 전체 변량의 3.9%를 설명하고 있다.

표 8. 여가제약과 참가의 회귀분석

관 계	b	$\beta$	t	p	F
제약→빈도a	-	.309	0.090	n.s	0.213
제약→강도b	-.496	-.199	-2.807	.006	7.881
제약→기간c	-	-.110	-1.538	n.s	2.366

R<sup>2</sup>: a=.008, b=.039, c=.012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5. 여가제약 협상과 참가의 관계

여가제약 협상과 여가참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번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제약은 독립변인으로 여가참가 중 빈도, 강도, 기간은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여가제약 협상은 빈도, 강도, 기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여가제약 협상과 참가의 관계

관 계	b	$\beta$	t	p	F
협상→빈도a	-	.111	1.550	n.s	2.403
협상→강도b	-	.054	.748	n.s	.559
협상→기간c	-	.076	1.050	n.s	1.103

R<sup>2</sup>: a=.00, b=.012, c=.006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의 과제는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제약이 여가 제약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여가제약이 참가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 협상이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논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은 구조적 제약을 가장 큰 방해 요소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재정적 문제, 정보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기인되며, 특히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큰 제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구조적 제약 때문에 여가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우선 실시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oucks-Atkinson & Mannell[20]과 Hubbard & Mannell[15]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들은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가제약 협상과정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가제약 협상 변인 중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과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에 여가제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제약을 느낀 중국인 유학생들은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반자를 찾거나 여가 활동의 참가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여가제약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이들 변인간의 설명이 낮게 나타났으며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Son et al.[25]의 연구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변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여가제약은 여가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이 세 가지 참가 유형 중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on et al.[25]의 연구에서 여가제약이 여가 참가에는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여가제약은 참가를 방해하는 요소로써 적절한 협상 전략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넷째,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 참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ackson et al.[17]이 제안한 여가제약 협상 과정을 통해 참가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여가 제약 협상이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Carrol & Alexandris[13]와 Raedeke & Burton[23]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인 유학생은 여가제약 협상을 통해서도 극복하기 힘든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인해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구조적 제약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이러한 여가 제약은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

로는 여가제약 협상을 통해 제약을 극복해 나가지만 중국인 유학생은 타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 신분으로서 제약을 극복하기에는 더 많은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 2.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 참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생활에서 여가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전략을 통해 여가참가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여가 제약이 협상 전략을 자극하여 제약을 극복함을 의미한다.

둘째, 여가 제약은 여가 참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참가의 요인 중 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제약 요인들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은 여가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오랜 시간 참가를 지속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여가제약은 여가 참가를 방해한다는 여가제약의 개념적 정의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 참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여가제약 협상 전략은 여가 참가를 촉진시키는 결정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한국에서의 여가제약이 협상 전략을 통해서도 극복하기 힘든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들의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거주 중국유학생들의 여가제약 발생 및 여가제약 협상, 그리고 여가 참가에 대한 상호관계를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여가 연구 분야에서 관심이 부족한 소외 계층의 여가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현재 정부와 각개 시민 단체에서 큰 관심과 지원을 보이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에 있어 다문화 사회의 성원

들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여가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1] 고동우, *여가학의 이해*, 서울: 세림출판, 2008.
- [2] 김경식, *스포츠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무지개사, 2005.
- [3] 김경식, 황선환, 원도연, “여가제약 협상 전략 적도의 개발과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3호, pp.365-376, 2008.
- [4] 김지영, 이철원, “기혼여성근로자의 여가제약 협상 전략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5호, pp.289-299, 2009.
- [5] 나동석,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7호, pp.21-46, 2010.
- [6] 출입국관리현황자료, 법무부, 2010.
- [7] 전홍철, “한국유학부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어문학지, 제30권, pp.385-406, 2009.
- [8] 최성훈,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들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협상 전략 분석”, 체육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pp.997-1010, 2010.
- [9] 하정희, “중국유학생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pp.473-496, 2008.
- [10] 황선환,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참가자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제20권, 제3호, pp.499-506, 2009.
- [11] 황선환, 서희진,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진지한 여가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제20권, 제2호, pp.297-307, 2009.
- [12] 황선환, 최홍석, 한승진,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스키어를 중



- 심으로”, 체육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pp.974-983, 2010.
- [13] B. Carroll, and K. Alexandris,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ir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 G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9, pp.279-299, 1997.
- [14] D. W. Crawford, and G. Godbey,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Vol.9, pp.119-127, 1987.
- [15] J. Hubbard, and R. C. Mannell,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Vol.23, pp.145-163, 2001.
- [16] E. L. Jackson,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s*, Vol.10, pp 203-215, 1988.
- [17] E. L. Jackson, and D. Scott, "Constraints to leisure," In E. L. Jackson & T. L. Burton(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1999.
- [18] T. Kay, and G. Jackson, "Leisure despite constraints: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3, No.4, pp.301-313, 1991.
- [19] J. S. Livengood, and M. Stodoloska,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and constraints negotiation on leisure behavior of American uslims in the Post-September 11 Americ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6, pp.183-208, 2004.
- [20] A. Loucks-Atkinson, and R. C. Mannell, "Role of self-efficacy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The case of individuals with fibromyalgia syndrome," *Leisure Sciences*, Vol.29, pp.19-36, 2007.
- [21] R. Mannell, and D. Kleiber,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1997.
- [22] A. Nadirova, and E. L. Jackson, "Alternative criterion variables against which to assess the impacts of constraint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2, No.4, pp.396-405, 2000.
- [23] T. D. Raedeke, and D. Burton, "Personal investment perspective on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Role of incentives, program compatibility, and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Vol.15, pp.99-113, 1997.
- [24] L. Raymore, G. Godbey, D. Crawford, and A. Voneye, "Nature and process of leisure constraints: An empirical test. *Leisure Sciences*," Vol.15, pp.99-113, 1993.
- [25] J. S. Son, D. L. Kerstetter, and A. J. Mowen, "Do age and gender matter in the constraint negotiation of physically active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0, pp.267-289, 2008.

참 고 문 헌

김 종 호(Jong-Ho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 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 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사회학, 여가사회학

조 욱 연(Woog-Yeon Jo)

정회원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 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 스포츠 정책, 스포츠 사회학

조 성(Cao Xing)

정회원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석사 졸업
- 2010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와 대중매체, 여가·레크리에이션

황 선 환(Sun-Hwan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여가학 박사졸업
- 2010년 3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정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여가사회학, 여가심리학, 여가경영, 청소년 캠프